

박완서 문학의 여성성

- '집'과 '밥'의 기억을 통한 여성들 간의 소통 -

이선옥*

〈차례〉

1. 머리말
2. '집'-모방된 욕망, 병리적 징후의 기억들
3. '밥'-공동체의 기억, 공모의 기억들
4. 사후적 진실의 재해석-소설과 수필의 경계 허물기
5. 맺음말

〈국문초록〉

박완서 문학에서 '집'과 '밥'은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고, 주부로서의 자기 체험에 기반한 내용이다. 1960, 70년대의 한국 사회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전복된 물질적 기반과 정신적 가치 모두를 재구성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그 때문에 박완서가 다루었던 전후의 집과 밥의 문제는 개인적 삶과 공동체의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협상하는 투쟁의 장이 된다. 근현대사의 변화가 어떻게 개인의 삶으로 투입되고, 추동되는지 집과 밥의 문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박완서 문학의 장점이라 판단된다. 또한 장르적 위계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오히려 경계를 넘나드는 수필과 소설의 결합 방식은 해석하기 어려운 여성의 자기 경험 말하기의 효과적인 전략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균열된 체험 자체를 소설에 들여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사후적 진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

* 숙명여대 교양교육원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는 사실 때문에 독자는 이 작품을 수필처럼 읽어나가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들 사이의 균열된 상태를 추적해나간다. 독자들의 적극적 채워 읽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설과 수필의 경계허물기는 작가와 독자가 함께 해석해 나가는 공감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도 유용한 서술적 전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박완서, 여성문학, 사후적 진실, 채워읽기, 집, 밥

1. 머리말

박완서는 1970년 『나목』(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응모에서 당선)으로 등단, 2011년 별세하는 순간까지도 창작을 지속했던 영원한 현재진행형의 작가이다. 대중적인 사랑과 평단의 호응을 함께 받았던 드문 작가이기도 하지만 대중성과 작품성에 대한 논란 또한 박완서 작품의 운명이기도 하다. 소설과 수필, 동화에서 잡지에 실린 잡문들까지 그녀의 글쓰기는 대중성과 늘 맞닿아 있다. 그것이 동시대 작가 오정희와 비교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르 경계 허물기는 박완서가 늦은 나이에 다섯 아이의 엄마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등단한 탓도 있겠지만, 여성지 장편소설 공모라는 등단 이력과도 관계가 있다. 전문화되고 제도화되어가는 문학장에서 약간은 비껴서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 소설가’로서 박완서의 글쓰기 장르는 대중소설과 본격소설, 수필가와 소설가가 분화되던 시절에 오히려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가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장르적 경계를 해체하는 글쓰기의 경향 때문에 그녀의 소설은 일상을 담아내고 발견하는 데 탁월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버지니아 울프가 사실과 허구를 정교하게 교차시켜 소설적 에세이 장르를 빚어냈던 『자기만의 방』(1929)을 떠올려 보면, 여성들이 수필과 소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의 자기고백적 문학세계를 형성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리타 펠스키의 분석처럼 여

성들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편으로 글 쓰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¹⁾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박완서의 문학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만이 아니라 소설장르에서도 수필과 소설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으며, 전쟁 체험을 다룬 ‘엄마의 말뚝’ 시리즈의 경우는 특히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전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전쟁체험의 ‘다시쓰기’를 시도하는 일련의 작품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를 알 수 없는 기묘한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과 허구를 통해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했던 버지니아 울프의 서술기법과 겹쳐 읽히는 부분이다. 무엇이 사실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품들이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진실이나라는 것이다. 사실과 허구의 기묘한 결합은 진실을 찾아 나가는 여성작가들의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서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이 ‘재현(representation)’이라 불리는 이유는 물론 사실의 반영이라는 소설의 근본적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의 체험적 사실성은 좀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작품의 추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재현의 문제보다는 서술방식의 전략적 측면으로 읽힌다. 오정희와 박완서가 등장하는 1968년, 1970년의 시점은 여성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작가의 본격 출발기가 아닌가 싶다. 특히 여성작가들은 수필가와 소설가, 시인이 본격적으로 분화되고 여류문인이 아닌 전문작가군이 형성되는 1970년대로 접어들게 된다. 1960년대에는 봄이라 불릴 정도로 여성 소설가 지망생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작품에 대한²⁾ 평가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수필 같다, 혹은 소설화가 덜 되었다는 비판이다.³⁾ ‘자전적’이라는 용어가 페미니즘에 의해 재해석

1) Rita Felsky는 근대 여성작가의 글쓰기 특징을 자기 발견을 위한 고백으로 분석하고 있다(*Beyond Feminist Aesthetics*, Harvard University, 1989).

2) 당시 문학을 지망하는 여성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좌담-여류작가의 애환』, 현대문학, 1966.7, 41쪽)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 여류작가의 결정적인 약점”(강인숙, ‘한국현대여류작가론’, 『현대문학』, 1968.1, 358쪽)이라는 게 평단의 흐름이었다고 판단된다.

될 때까지 이 말은 소설적 구성이 미숙하다라는 말과 동음이의어였다. 여성작가들이 농담처럼 오정희류와 박완서류 작가 중에 오정희류가 되고 싶다고 한다는 말도 소설 장르에 대한 정전화된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여성문학적 시각에서 박완서 문학을 다시 본다면 박완서 문학의 여성성은 주제적 특성만이 아니라 이러한 글쓰기의 여성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 수필과 소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여성의 일상을 발견해낸 가장 두드러진 작가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체험적 요소가 작품의 주제적 측면에서는 일상을 어떻게 발견해내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르해체적 글쓰기와 결합할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여성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 생활 중에 1970년대 작품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생활에 밀착해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1980~90년대 ‘엄마의 말뚝’ 시리즈와 전쟁 체험을 다룬 작품들은 식생활 즉 ‘밥’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재발견해내는 특성을 주목하려 한다. 이런 분석이 사실 새로울 것은 없겠지만, 이 글에서 이 주제를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집’과 ‘밥’이 단순히 주제적 측면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교차하는 하나의 ‘과정’을 그려낼 수 있는 소설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과정’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집을 꾸

3) 1960년대 대표적인 잡지 『여원』의 여류현상문에 당선 작품들을 보면, 작품의 주제나 서술적 특징이 여성의 체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지나치게 자기 경험을 드러내서 수기류 같거나 소설적 구성이 덜 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광종원은 “후보에 오른 12편은 대부분이 작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수기 비슷한 인상이 짙었”(심사평, 『여원』, 1967.1, 308쪽)다고 평가하면서 소설적 구성을 요구하였다.

4) 장르 서열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19세기 서양의 문학 개념의 변화와 함께 급부상한 장르가 허구적 소설 장르이다. 특히 내셔널리즘의 전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통합과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서사문학의 압도적 우위가 만들어진다(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유희, 왕숙영 옮김,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27쪽, 39~44쪽).

미고 유지하는 것도,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는 일에도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과 ‘밥’은 시간과 공간이 흘러가고 그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중요한 소설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소설적 장치는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가꾸어가며 그 공간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오롯이 지켜낸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그려낼 수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지켜본 박완서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다는 욕망이 이 주제를 다시 꺼내들게 만들었다.

2. ‘집’-모방된 욕망, 병리적 징후의 기억들

박완서의 소설을 주제별로 본다면, 중산층 도시 소시민의 단허진 삶의 조건을 다룬 작품들과 전쟁 체험을 다룬 자전적 소설들 그리고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 늪어감이나 죽음의 문제를 다룬 소설 등으로 나뉘어진다. 중산층 도시 소시민의 삶을 다룬 소설로는 『지렁이 울음소리』,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포말의 집』, 『닭은 방들』, 『어떤 나들이』, 『주말농장』, 『화랑에서의 포식』, 『재수굿』, 『휘청거리는 오후』, 『도시의 흥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쟁 체험 소설로는 『나목』, 『목마른 계절』, 『부처님 근처』, 『카메라와 워커』, 『엄마의 말뚝』 1, 2, 3,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남자네 집』 등이 있다.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로는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등이 있으며, 늪어감이나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으로는 『너무도 쓸쓸한 당신』, 『아주 오래된 농담』, 『친절한 복희씨』 등이 있다. 사실 이런 거친 주제별 분류로는 박완서의 문학을 일별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선 큰 그림으로 박완서 문학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특성들을 범주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박완서 문학과 여성성에서 주목되는 첫 번째 작품들은 중산층 도시소시민이 된 주부의 삶과 그들의 ‘집’을 다루고 있는 1970년대 작품들이다.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

들은 모던한 아파트 주민이 되고 싶어 발버둥치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닭은 방들’의 고립감과 익명성일 뿐이라는 성찰을 이 작품들은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의 과정과 생태적 변화를 가장 적확하게 보여주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이 작품들의 성과는 ‘집’이라는 공간에 살면서 그 변화의 과정들과 새로운 욕망들이 생겨나는 과정에 밀착한 결과이다. 박완서 문학의 여러 갈래가 탄생하게 되는 원형적 작품이라 볼 수 있는 『나목』의 결말 부분은 그러한 점에서 주목된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중년의 가정주부가 된 ‘나’의 서술로 마무리되는 결말 부분은 현재 중산층이 된 작가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남편이 나를 다시 상식적인 세계로 끌어들인다. …(중략)…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여 보지 않은 눈, 부수수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라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건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건딜 수 없어서였다.⁵⁾

위 예문은 『나목』의 결말 부분이다.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잡기 시작한 중년이 된 남편이 ‘또다시 낯설다’는 ‘나’의 고백은 현재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낯설음을 표현하고 있다. 상식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별거숭이 나목처럼 떨고 있는 나의 불안과 낯설음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일상과 전도된 규범, 광포한 폭력의 시대를 경험한 이들이 결코 인락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말해준다. 전쟁의 상처로 인해 집으로 귀환했지만 이

5) 『나목』(1970), 박완서소설전집, 세계사, 1995, 286쪽.

들의 귀환은 불안한 상태이다.

‘집’으로의 불안한 귀환은,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의 담당자로 변신한 중산층 여성들의 불안의식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욕망을 덮어버리고, 가부장적 질서로 돌아오지만 이미 남녀의 역할이 전도되고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질서는 절대성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의존적이고 보호받는 삶은 오히려 낮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처자식만 아는 남편, 많은 아이들.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는 게 매가리가 없고 시들시들하고 구질구질하고 답답하고 넉더리가 났다. 사는 즐거움, 나는 흥미를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마치 망가진 용수철처럼 매가리가 없이 풀려 있었다. 싱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서움중조차도 처녀적 같은 싱싱함을 이미 상실하고 있었다. …(중략)… 그런데 문제는 그 망령이 처박혀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들이 있는 것을 명치 근처에서 췌장을 의식하듯 내 내부의 한 가운데서 늘 의식해야만 했다.⁶⁾

이 예문은 「부처님 근처」의 한 대목이다. 이 예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욕망을 억압한 삶은 싱싱함도 감수성도 존재하지 않는 무력한 삶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박완서의 1970년대 소설은 중산층 도시 소시민이 된 여성들이 느끼는 단절감, 소외감을 「지렁이 울음소리」, 「겨울 나들이」, 「어떤 나들이」, 「닭은 방들」⁷⁾을 통해 그려낸다.

「지렁이 울음소리」의 주인공 나는 적당히 출세한 남편, 안정된 생활, 그리고 세 아이를 둔 ‘행복의 산표본’과 같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만은 안돼, 그것만은 참을 수 없어”(71쪽)라고 외치는 내부의 반란을 딸꾹질이나 중얼거림으로 겨우 참아내는 내적 갈등에 처해 있다. 주인공이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대목은 행복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남편

6)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일지사, 1976, 61쪽.

7) 이 장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작품 예문은 이 단편집 페이지를 표기하였다.

의 소시민성과 아이의 진로까지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자기중심성이다.

남편은 말끝마다 자기 스스로를 예로 들어가며 안정된 생활의 행복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아들을 타일렀다. 「봐라. 지금의 네 애비를. 왜 그럴 게 있나.」 이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의 입가에 떠오르는 득의와 회심의 미소가 나는 싫고 징그러워, 남편의 그런 미소가 형편없이 구겨질 일이 일어나기를 나는 옆에서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끝내 부자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은 다소곳이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더니 열심히 과외 공부를 해 보겠다고 했다. 행복한 집답게 부자간의 언쟁도 해피 엔드였다. 그러자 내 내부에서 별안간 힘찬 반란이 일어났다.(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은 참을 수 없어. 그럴 수는 없어.)(71쪽)

한없이 의기양양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단절감, 이질감은 풍요롭고 충만한 인간관계를 잃은 중산층 여성들의 소외 상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내적 갈등은 함께 풀어낼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억압된 말들이 내적 독백이나 욕설, 혹은 병리 현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⁸⁾

「어떤 나들이」의 주인공이 느끼는 심리 상태도 거의 유사하다.

「쫓쫓, 어떤 녀는 저리도 사주팔자를 잘 타고났노. 시골년이 금시 발복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서방하고 잠자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도 밥이 주러운가 의복이 주러운가……」 나는 이 소리가 미칠 듯이 징그러울 뿐 추호의 이의도 없다. 팔자가 좋다는 건 얼마나 구원이 없는 암담한 늪(沼)일까?

8) 이 시기의 작품들에 자주 등장하는 딸꾹질, 징그러움, 구토, 주정, 히스테리, 목까지 차오르는 알 수 없는 끓어오름 등 주인공들의 병리 현상은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들의 단절의식과 사적 공간에 갇힌 주부들의 소외의식을 상징하며, 자아를 찾으려는 욕망을 의미한다.

(「어떤 나들이」, 22쪽)

패류처럼 단단한 자기 껍질 속으로 숨어버린 남편과 아들들, 생각할 겨우가 일거리보다 더 아쉬운 권태로운 일상, 결국 알콜에 의지해서나 열기를 얻을 수 있는 차가운 관계. 「어떤 나들이」는 갇힌 일상에서 어떠한 열정도 얻을 수 없는 중산층 주부의 소외감을 ‘구원이 없는 암담한 늪’이라 표현한다.

「닭은 방들」에서는 앞집의 철이엄마라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획일화된 삶의 모방관계일 뿐 대화를 통한 상호소통의 출구가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 작품에서 여성의 고립감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나들이」(「어떤 나들이」), ‘간통」(「닭은 방들」), ‘욕」(「지렁이 울음소리」)으로 상징되는 탈출 시도는 좌절되고 “음습하고 권태로운 욕망이 수초처럼 흐늘 흐늘 흐느적대는”(「지렁이 울음소리」, 81쪽) 일상에 갇히고 만다.

특히 박완서의 작품에서 주부들의 고립감을 표현하는 공간은 아파트로 상징된다. ‘아파트’라는 상상력은 집이 더 이상 삶의 공간이 아니라 사적 공간의 고립과 가족간의 단절, 모방된 욕망의 출구없음을 담아내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1970년대 도시화 프로젝트는 삶의 공간을 급격히 변화시켰고, 그러한 사적 공간의 담당자가 된 여성들은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는 가장 첨예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닭은 방들」의 ‘나’는 복작대는 친정살이를 마감하고 드디어 18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다.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아파트는 앞집 여자의 예쁜 앞치마처럼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의 삶은 앞집 여자와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밥을 먹는 모방적 삶에 불과하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삶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절망이 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다.

그 여자네 살림살이는 어찌나 알뜰하고 아기자기한지 꼭 동화 속에 나오는 방 같았다. 나는 꼭 그 여자네 방처럼 꾸미고 싶었다. …(중략)… 방은

빨리 꾸며졌다. 뒤늦은 혼수 해 주는 셈 친다고 비용은 아버지가 부담했다. 나는 그 여자네 방보다 더 멋있게 꾸미려고 별렀으나 꾸며 놓고 보니 가구의 배치나 커튼의 빛깔까지 비슷한 것이 되고 말았다.(154쪽)

1970년대 박완서의 소설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소외 현상을 중산층 주부의 촉각으로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중산층 주부의 위치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와 관계의 단절을 가장 먼저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사적 영역의 고립과 소외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11평의 파수꾼”(『어떤 나들이』)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내 생활은 여전히 끔찍하게 따분했다. 나는 내 이웃의 무수한 닳은 방들이 끔찍했”(『닳은 방들』, 162쪽)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앞집 남자와의 간음을 꿈꾸는 섬광같은 불꽃 정도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남편과 같은 얼굴, 남편과 같은 파자마를 입은 앞집 남자를 확인하는 헛된 욕망일 뿐이다.

이처럼 박완서의 ‘집’은 사적 공간의 고립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나만은 다르다고 외쳤지만 모방된 욕망으로 결국 동일해지는 삶들만이 존재한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통해 박완서는 우리 삶의 고립성과 모방성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의 작품은 곧바로 공적 영역으로의 탈출이나 사적 영역으로의 함몰 어느 한편으로 치달아가지 않는다. 양자택일에 대한 긴장감은 계속 동일한 질문으로 반복되는데, 어느 한쪽의 답을 쉽게 내리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체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괴된 일상, 여성적 삶에 대한 귀환적 욕망과 그것의 절대적 신비성이 사라진 현실 그러한 체험이 ‘집’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거리두기가 가능했던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형성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쟁체험은 젠더 규범의 허약성을 경험하게 했으며, 평화로움이나 의존적인 삶의 방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성찰적 시각을 마련하게 한다. 하지

만 집과 바깥세상 모두의 부정성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성의 고립감을 바깥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쉽게 처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손쉽게 ‘집’과 ‘세상’이라는 이분법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박완서의 장점이다. 오히려 집이라는 공간의 소외를 통해서 공/사 분리 구조를 통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3. ‘밥’-공동체의 기억, 공모의 기억들

1970년대 작품들이 ‘집’을 공간으로 고립된 여성을 그려냈다면,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전쟁 체험 다시쓰기는 ‘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 있던 서울살이에서 먹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했던 기억이나, 그저 남들 흉내라도 내자고 떠났던 피난길에서 먹었던 남의 집 김장김치, 교하면의 갈게맛 등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죽은 오빠를 파묻고 와서 엄마와 가족들이 아구아구 퍼먹은 팔죽은 썩은 시신의 악취를 풍기는 듯하다. 이런 먹는 일에 대한 과정과 절차는 단순한 에피소드의 차원이 아니라 전쟁 체험을 다룬 소설들의 가족관계를 그려내는 서술적 장치가 된다. ‘밥’은 짐승의 시간에 대한 증언의 방식이기도 하고, ‘밥’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함께 했던 울케와의 우정을 형성하는 계기이기도 하고, 인간의 시간을 입증하는 절차와 상호소통의 의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밥’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은 개인적 기억이면서 가족 공동체적 기억이기도 하다. ‘밥’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문화가 되는 순간이다. 밥을 중심으로 전쟁 체험 소설들을 재해석해 보았을 때 박완서의 소설이 끊임없이 전쟁체험 다시쓰기를 통해 발견해내는 진실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박완서 소설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하나의 축은 전쟁 체험의 재현이다. 등단작인 『나무』(1970)에서부터 「엄마의 말뚝」 연작(1편은 문학사상 1980.9, 2편은 1981.8, 3편은 작가세계 1991. 봄호에

발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출판, 1992)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웅진출판, 1995), 『그 남자네 집』(현대문학, 2004)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자전적인 전쟁체험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⁹⁾

작품들의 변화를 ‘밥’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추적해보면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나무』이나 「엄마의 말뚝」 연작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특이한 소설적 관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나무』의 경우는 노란 은행잎, 하얀 호청 이불, 핏빛으로 물든 이불의 강렬한 색 대비가 두드러진다. 엄마의 회색세계와 다채로운 색의 세계를 열망하는 나 사이에 충돌과 갈등도 색을 통해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 많던~』, 『그 산이~』 작품에서는 전쟁기 동안의 먹고살기에 대한 묘사가 전면으로 드러나 있으며, 먹는 일에 대한 의미나 관심은 『그 남자네 집』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밥’에 대한 관심이 전쟁을 증언하는 소설적 장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석은 “요리의 진화는 그동안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지만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한 리처드 랭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요리는 기다림의 역할과 의미를 인류에게 가져다준 일대 사건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을 분석하는 글에서 그는 요리의 철학적, 서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박완서 문학의 ‘밥’에 대한 의미를 해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리는 무엇보다도 인간 삶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의 ‘과정’을 발생시킨다. 먹이를 바로 먹으면 먹이 섭취까지의 과정은 있지만, 자연 상태의 먹이를 문화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과 식사의 별난 과정은 생기지 않는다. 요리의 철학적 의미는 그것 자체가 곧 ‘특별한 과정’이라는 데에 있다. 나아가 고대의 성찬 의례로부터 현대의 테이블 매너에 이르기까지 ‘식사의 과정’을 발생

9) 줄고, '모성 다시쓰기의 의미-박완서론', 『여성문학연구』 4호, 2000.12 참조. 이 논문에서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다시쓰기가 엄마를 부정했던 딸의 서사에서 엄마 역시도 흔들리고 갈등하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발견해가는 과정임을 밝힌 바 있다.

시킨다는 데에 있다. 우리는 때로 매우 긴 시간과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특별히 늘어진 과정은 ‘사건’이 개입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대장금>에서는 그 과정에 권력이 개입하면서 사건을 일으키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몰고 간다.¹⁰⁾

우리가 ‘날 것의 먹이를 문화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과 ‘식사의 절차’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과정이라는 분석은 박완서 문학에서 ‘밥’이 지니는 의미를 해독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대장금>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하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박완서의 작품은 식사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족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 산이~』는 맛에 대한 감미로운 기억과 짐승과 같은 무자비한 식육과의 대비를 통해 전쟁의 시대를 증언하고 있다. 소만 무렵의 굴비말리기, 복중의 민어찌개, 벼가 누렇게 익어 갈 무렵 민물게로 장담그기 등 시식(時食)에 대한 황홀한 추억은 맛에 대한 기억이 단순히 개인적인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일의 절차,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감과 인간적인 존엄함에 대한 기억임을 알 수 있다. 잃어버린 맛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묘사되면 될수록 야만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먹고살기는 더 참혹하게 다가온다.

노소나 남녀나 체면을 가릴 것 없는 그 게걸스러운 식욕 때문에 열두 식구가 완전히 가족의 개념을 떠나 각자 밀 빠진 위를 지닌 순전한 먹는 입으로 보였다. 그 찻찻거리고 와삭거리는 입은 남보다 더 먹기 위해 발동을 건 것처럼 사정없이 움직이고, 눈빛은 더 먹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적의로 잠시도 안정을 못 찾고 휘번득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사람의 식구도 아니다. 짐승의 식구지. 나는 그 따위 건방진 생각도 할 수 있는 주제에, 움직이는 발동기의 피대줄에 말려들 듯이 얼떨결에 그 무자비한 식욕에 편

10) 김용석, 『철학광장-대중문화와 필로소페인』, 한겨레출판사, 2010, 136쪽.

승했다. 그건 식욕도 아니었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적의였다.(118~119쪽)

체면도 없이 게걸스러운 식욕으로만 남은 가족들은 사람의 식구가 아닌 짐승의 식구라 표현된다. 전쟁기의 밥은 시식의 절차와도 공동체의 문화적 경험과도 거리가 멀다. 적의로 휘번득대는 무자비한 식욕은 오빠를 문고 와서 팔죽을 먹는 정경에 이르면 절정에 달한다. 짐승의 시간을 증명하는 공격성과 공포만이 남은 밥상이다.

짐승의 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먹고살기의 반대편에 시식에 대한 황홀한 추억이나 피난길도 잡아당길 만큼의 감미로운 김장김치와 교하면의 갈계맛에 대한 묘사가 존재한다. 피난 떠난 빈집의 김치서리지만 올케와 함께여서 안심되고 인간다운 절차가 담긴 먹거리에 대한 황홀한 기억은, 발터 벤야민의 ‘산딸기 파이’처럼 그 순간의 아우라를 지닌 절대적인 맛의 기억을 남기게 된다. 전쟁의 공포와 허기, 쫓기는 자의 불안함 모든 상황이 결합된 상태에서 먹었던 ‘산딸기 파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왕의 기억에 남았던 것처럼, 피난길의 ‘밥’은 공포와 허기를 달래 주었던 황홀한 기억이다. 이같은 전쟁기의 ‘밥’이 짐승의 시간에 대한 증명인 한편으로 가장이 되어버린 시누와 올케 사이를 공모자로 만들고 또한 우정을 쌓게 하는 먹고살기의 과정이었다면, 전후의 삶에서 밥은 다시 까다로운 절차와 위용을 갖춘 문화적 힘으로 다가온다.

『그 남자네 집』에 등장하는 한 대목을 예로 들어 보자.

낮선 풍습과 불화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또 한 계절이 가고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벼가 누렇게 익을 무렵에 장이 짝 찬다는 참계장 담글 궁리를 하고 있었다. 계장용 진간장까지 따로 담가놓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생전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시집의 식도락에 절망을 느꼈다. 먹는 것 외의 탄생각을 하고 살 순 없는 것일까. 나는 탄생각을 하기 좋아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어떤 것이 옳은지 비교할 생각은 없었지만 탄생각을 하는 게 나에게서 더 맞는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지기 시작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어서 그렇게 애뜻할 수가 없었다. 민어를 아무리 잘 요리해도, 양곱창을 아무리 잘 손질해도, 그 맛의 극치나 진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어는 민어맛을 벗어날 수 없고, 소 내장은 결코 은근한 소퐁 냄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조기가 굴비됐다고 해서 조기맛과 판맛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민어맛이나 준치맛의 궁극에 도달했다고 해서 어쨌다는 것일까. 누가 상을 줄 것도 아니고 인간이 신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고작 혀끝에서 목구멍까지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판생각을 할 수 있다면 판 세상이 열릴 것 같았다.(136~137쪽)

이 예문은 외아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음식만들기의 절차에 집착하는 시어머니와 판 생각을 좋아하는 나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식사의 과정이 아니라 만들기의 절차에 집착하는 것은 요리가 권력화되는 순간이다. 남편의 입맛을 황제처럼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권력화된 음식을 당연하게 누린다는 점 때문이다. 그에 비해 내가 원하는 ‘밥’은 만들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쾌락적 욕망에 가깝다. “나는 시어머니가 다락같이 높여 놓은 아들의 입맛에 아부하기 위해 솜씨를 있는 대로 부린 송이산적의 맛보다 그 남자하고 같이 시장바닥 진창에 쭈그리고 앉아 사먹는 돼지껍데기에 더 깊은 맛을 느꼈”(184쪽)다는 고백은 그러한 욕망을 잘 드러내준다. ‘그 남자’는 피난을 가지 못 하고 서울에 남아 있던 시절 나의 청춘을 지켜준 첫사랑의 남자이다. 엄마의 먼 친척이기도 하고 나보다도 2살이나 아래인 그 남자와 나는 갇힌 공간에서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결혼 후에도 자투리 시간에 가끔 만나며 청계천과 동대문 시장을 함께 다니곤 한 남자이다. 노년의 서술자 ‘나’가 그 남자를 기억의 저편에서 끄집어내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일곱 식구가 되면 밥상머리도 난리였다. 시어머니는 아우 본 아이에게 왕년에 종기 뺀 입으로 밥을 씹어먹이라, 국그릇 옆지를까봐 떼어놓으라, 당신도 잡수시라,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몰랐을 테지만, 나 역시 가슴을 헤치

고 갓난쟁이한테는 젓을 물린 채, 손가락질만 겨우 하는 아이에게 젓갈로 반찬 뇌주랴, 큰 아이에게 골고루 먹으라고 야단치랴, 아이들이 흘린 거 주워 먹으랴, 내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과연 먹긴 먹은 건지 헛갈릴 때가 많았다. 이 아귀다툼에서 남편은 제외시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남편 대접이었다.(247~248쪽)

위 예문을 보면 네 아이의 엄마가 되어 겪어야 하는 일상의 밥상도 투쟁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쟁기의 인간성을 상실했던 가족들의 밥상과는 전혀 다른 죽음의 밥상이 아닌 생의 기운으로 넘치는 밥상이다. 시어머니를 따라 쇠는 명절이나 생신, 아이들의 백날, 돌, 생일과 계절마다 챙겨야 하는 ‘세시기(歲時記)’ 역시도 계속되는 반복이 지루하기는 하지만 그 격식과 품위는 나에게도 일상을 지키는 힘이기도 하다. “세시기는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기록돼 있었다. 그런 날 차리는 음식은 산해진미랄 것은 없어도 풍성하고 맛깔스럽고, 그 이름 붙은 날의 격식에 어긋나지 않는 거였다.”(274쪽)는 서술에서도 격식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순간적인 식탐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님이 엿보인다. 시장통에 쭈그리고 앉아 그 남자와 먹었던 돼지껍데기가 아무리 쾌락적인 힘이 있다 해도 생명을 기르는 밥상, 문화와 제도를 유지하는 밥상의 힘을 누르기는 어렵다.

이러한 다양한 음식만들기와 식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박완서가 가장 기억하고 싶어 하는 밥상은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이 바글대는 생명의 밥상이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도둑질을 해서 만들었던 울케와 나의 밥상이 살갑게 묘사되고는 있지만 ‘밥’의 문제 역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밥’의 문제 역시 박완서는 가장 문명적인 절차로서의 세시기 즉 제도화, 권력화된 식사와 첫사랑과 몰래 나누던 자기 욕망의 밥상, 그저 생명을 기르고 먹이는 밥상 그 어느 한쪽에만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지는 않다. 가출과 귀환을 반복하는 ‘집’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밥’ 역시도 세 가지 밥상이 팽팽하게 긴장과 갈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밥’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이 작품의 서사를 이끌고 있으며, 밥은 가장 개인적인 취향이자 경험이면서 또한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인적 기억이지만 집합적 기억의 의미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4. 사후적 진실의 재해석-소설과 수필의 경계 허물기

박완서 문학에서는 ‘집’의 문제도 ‘밥’의 문제도 어느 한 쪽으로 답을 내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안과 밖,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이 팽팽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쟁기 체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던 3개월 간의 이야기는 1970년 등단작 『나목』에서 2004년 마지막 장편인 『그 남자네 집』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해서 다시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나목』, 『엄마의 말뚝』 연작, 『그 산이~』 연작, 『그 남자네 집』까지 약 10년 터울로 다시쓰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엄마와 나의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도, 20살 나의 혼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다른 의미와 해석을 보여준다. 스토리 타임은 동일하지만 디스코스 타임의 변화로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와 관점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초적 사건은 단지 그것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역사적 진리)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야기됨으로써 그 의미가 재해석되고 통합(서사적 진리)된다는 정신분석학적 관점¹¹⁾을 빌어서 생각해 보면 다시쓰기는 기억의 재해석을 통한 서사적 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좌익에 대한 사회적 금기 때문인지, 혹은 스스로 짐승의 시간이라 부를 만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었던 치욕스런 경험 때문인지, 혹은 여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경험 때문인지 체험적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

11) 박찬부, 『현대정신분석 비평』, 민음사, 1996, 240쪽.

만, 작가는 원체험에 대해 스스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다시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작고하지 않았다면 다시쓰기는 또 다른 시점에서 재시도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다시쓰기가 여성 경험의 드러내기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여성은 제대로 된 자기표현을 가지기 어렵고, 그로 인한 말하기의 어려움이 사후적으로 말하기를 거둬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해석이 그 하나이다. 물론 박완서가 늘변의 작가는 아니다. 모호한 언어와 회피적 서술이 두드러지는 작가 또한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도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여성작가들조차 결코 호의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말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문학적 방법과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왔는지는 모든 여성작가에게서 주목되는 공통의 측면이다.¹²⁾ 명징한 어휘를 사용한다고 박완서가 말걸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왜 작가가 치열할 정도로 다시쓰기를 시도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발견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여성적 글쓰기의 말더듬이같은 반복하기가 소설과 수필의 경계허물기를 통해 효과적인 소통의 전략이 되었다는 측면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엄격한 소설적 구성이 아닌 체험의 날 것을 그대로 소설적 장치로 도입하면서 사후적 진실을 재구성해나가는 데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작가의 관점에서 허구적으로 엄격하게 구성되고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자의 위치에서 서술되는 균열된 이야기들, 침묵과 이야기들 사이의 간극이 오히려 말더듬이 사이에 어떤 감추어진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체험을 다시쓰고 있는 작품들을 겹쳐서 읽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독자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작가의 여러 가지 거짓 증언을 듣게 된다. 오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자신의 결혼과 주부로서의 삶을 선택한 이야기도 작품마다 다

12) 켈 모리스,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116쪽.

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 때문에 독자는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게 된다. 작가의 체험에 기반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배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진술 속에서 진실찾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오빠의 죽음에 정작 당사자인 올케는 왜 서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자신이 일하던 미군부대에 소개했던 춘희가 양공주가 된 이야기는 왜 뜬금없이 2004년 『그 남자네 집』에 와서야 등장하는지, 오빠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녀가 증언하지 못하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 작가의 ‘다시 쓰기’와 독자의 ‘채워읽기’는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독자들은 진실찾기에 동참하게 되고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것이다. 마치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수다의 매력처럼, 독자는 친구의 고백에 혼수를 두는 자세로 의미찾기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여성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들이 문학형식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특별한 인식의 기쁨을 맛보는 경향이 있다.¹³⁾ 많은 여성작가들이 체험의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사실도 작가들의 글쓰기와 독자들의 읽기과정이 상호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남자네 집』의 한 대목이다.

정답이 나오면 비밀은 없어진다. 나는 그렇게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 인생이 살 만한 건 정답이 없기 때문인 것을.(101쪽)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그래서 살 만한다는 이 말은 박완서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생을 이해한다는 작가의 관점을 빌어서 채워읽기를 해보면, ‘밖’도 ‘집’도 어느 한 쪽의 승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각각의 안과 밖,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과 긴장의 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각 인생의 과제로 남겨진다. 다시쓰기의 한 축이 오빠의 죽음과 전쟁의

13) 켈 모리스, 앞의 책, 113쪽.

경험을 증언하고 해석하는 데 놓여 있다면, 한 축은 그 이후의 자신의 선택 즉 집으로의 귀환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으로 전쟁 경험과 전후 주부로서의 삶 사이에 균열을 재통합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갑자기 회복된 안전한 일상, 그 이면에 늘 꿈틀거리는 위험은 잠시 봉인되어 있지만 언제나 일상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러한 위험에 대한 자각 때문에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택했지만 그녀의 집과 밥은 늘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불안하다. 결국 안과 밖의 문제는 결합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분리된 역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전쟁의 경험 즉 공동체의 경험에 대한 배신으로 존재한다. 가정 역할과 사회 역할에서 풀기 어려운 선택에 대한 고민이 다시쓰기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또 하나의 과제로 보인다.

전후의 불안 속에서 안전한 집과 밥을 택했던 자신의 선택이 『그 남자네 집』에서는 이렇게 해석된다.

그게 내가 벼락 치듯 깨달은 정답이었다. 나는 작아도 좋으니 하자 없이 탄탄하고 안전한 집에서 알콩달콩 새끼 까고 살고 싶었다. 그 남자네 집도, 우리집도 사방이 비 새고 금 가고 조만간 무너져내릴 집이었다. 도저히 새끼를 낳 수 없는 만신창이의 집,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새끼를 위해 그런 집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101쪽)

전쟁통의 서울살이에서 빛이 되 주었던 그 남자의 기억을 품고, 안전한 결혼으로 도피했던 자신의 선택을 노년의 ‘나’는 어미로서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해석한다. 낯선 귀환의 불안함만 가득했던 『나목』의 마지막 부분이 다시 재해석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어미로서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녀가 억압했던 인간으로서의 욕망은 ‘그 남자’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결혼 후에도 그녀에게 달콤한 일탈의 시간을 가져다주었던 첫사랑 ‘그 남자’와의 기억은 그녀의 기억 속에 숨털이 떨릴 것 같은 인생의 비밀이 되어 있다.

비밀이라고 해서 부끄럽거나 부도덕한 것하고는 다르다.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 숨털이 일어서는 것 같은 떨림은 절대로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거나와 누구하고 공유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이야말로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나보다.(100쪽)

어미로서의 삶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욕망만으로도 삶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양쪽의 날 선 긴장감이 박완서 문학을 지탱하는 힘이라 생각된다. 여성에게는 어떤 선택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집으로의 귀환이 어미로서의 동물적인 선택이었지만, 미친 시간을 함께 지켜주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함을 뒤로 하는 선택이었다는 자괴감이 이 작품에 녹아 있다.

소설에 도입된 수필이라는 장치는 체험적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환상을 독자에게 불러일으킨다. 체험적 사실성이 소설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균열하고 있는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은 좀더 정치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체험적 사실성이 박완서 소설을 읽는 독자의 수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독자들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수필처럼 사실적 체험으로 읽어내고 경험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균열적 텍스트로 읽어낸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독자가 적극적으로 채워읽기(진실찾기)에 참여하게 된다.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체험의 의미를 다시쓰기와 채워읽기로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박완서 소설의 장르 경계허물기는 여성작가와 독자가 상호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서술적 장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아직 결론을 짓기가 어려워 이 글의 문제의식을 되짚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박완서 문학에서 ‘집’과 ‘밥’은 사실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주제이고, 주부로서의 자기 체험에 기반한 내용이다. 전후의 급속한 근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1960, 70년대의 한국 사회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전복된 물질적 기반과 정신적 가치 모두를 재구성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집과 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여성들의 삶의 기반인 동시에 폐허가 된 전후 사회의 공동의 목표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박완서가 다루었던 전쟁과 전후의 집과 밥의 문제는 개인적 삶과 공동체의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협상하는 투쟁의 장이 되었다. 근현대사의 변화가 어떻게 개인의 삶으로 투입되고, 추동되는지 집과 밥의 문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박완서 문학의 장점이라 판단된다. 이는 주부로서의 자신의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삶에 치열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르적 위계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오히려 경계를 넘나드는 수필과 소설의 경계허물기는 해석하기 어려운 여성의 자기 경험 말하기의 효과적인 전략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균열된 체험 자체를 소설에 들여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사후적 진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독자는 이 작품을 수필처럼 읽어나가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들 사이의 균열된 상태를 추적해나간다. 독자들의 적극적 채워읽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설과 수필의 경계허물기는 작가와 독자가 함께 해석해나가는 공감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도 유용한 서술적 전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완서, 『나목』(1970), 박완서소설전집, 세계사, 1995.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일지사, 1976.

박완서, 「엄마의 말뚝」 연작(1편은 문학사상 1980.9, 2편은 1981.8, 3편은 작가세계 1991. 봄호에 발표).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2.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1995.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4.

2. 단행본

김용석, 『철학광장-대중문화와 필로소페인』, 한겨레출판사, 2010.

박찬부, 『현대정신분석 비평』, 민음사, 1996.

웬 모리스,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하루오 시라네 · 스텔라 토미 엮음, 왕숙영 옮김,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Rita Felsky, *Beyond Feminist Aesthetics*, Harvard University, 1989.

【Abstract】

Politics of 'Jib' and 'Bab'- Park Wan-Seo's novel

Lee, Sun-ok

At first this article is trying to clarify why Park Wan-Seo's novel focus on Bab(means Food) and Jib(means House). 196, 70's is the period of reproduction of social ideology and infrastructure after Korean war. And so experience of house wife has an importance of positionality. They can easily know how to embody social politics in private sphere. Jib and Bab in Park Wan-Seo's novel represent such an house wife of positional importance. The second point is trying to analysis on rewriting and autobiographical writing. Park Wan-Seo is writing about the same subject- war and the death of her elder brother- in four different novels. The four different novels are the *Namok*, *Uhm-ma ui Malttook* series, *Geu Mahntun Shinga neun nooga dah mugutseulkka* and *Geu Sahn e jungmal guhghi itsut sulka* series, *Geu Namjane Jib*.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novels are that the author's autobiographical aspects of war and her brother's death is shown by weaving through fiction and non-fiction. I am trying to clarify why she combined fiction and non-fiction, how Park Wan-Seo's narrative strategy effect to read of women reader. I think that women reader tend to read as a non-fiction because of schema about Park Wan-Seo's autobiographical writing. And so they tend to complete meaning gap between her rewriting novels. This process of rewriting and reading become a communication of women. I think this process is the reason why Park Wan-Seo's novel is popular.

Key words: Park Wan-Seo, Feminism, Bab(means Food), Jib(means House), Autobiographical writing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